

청소년 안전캠프 남원 유치

시, 제2회 119 프로미 안전리더·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등

남원시가 소방청이 주관하고 현대백화점,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제2회 119 프로미 안전리더 캠프'와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약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남원 유치는 경찰, 소방공무원 대상인 '제복공무원 자녀 캠프'를 포함하고 있는 본 캠프를 통해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2중안경찰학교와 소방심신수련원 등 공공기관 유치 연계 기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유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작년 7월 남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 안전캠프를 계기로 전복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소방청이 요구하는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남원 주천면 소재 지리산유수캠프와 전북자치도 119안전체험관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리산둘레길과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전략적 접근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캠프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소방청, 후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자체 예산 투입은 거의없이 현대백화점 약 1억원과 DB손해보험 측 약 3억원 등 기업 지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의류, 간식 차 등 물적 지원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대대적 홍보



남원시가 소방청이 주관하고 현대백화점,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제2회 119 프로미 안전리더 캠프'와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유치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1일 열린 2024년 남원 제12회 한국119청소년단 전국 안전캠프.

보도 병행해 캠프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리산에서 살아남기 △관한루 안전 탐방 △순환이와 함께하는 안전 탐방 등 다양한 안전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배우게 된다. 특히, 지리산에서 살아남기 코스에서는 생존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관한루 안전 탐방'에서는 생활 속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 기간에는 소방청 관계자들과 참가자들 및 가족들이 남원시에 체류하며 숙식할 예정이며, 특히 119프로미안전리더캠프 참가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입·퇴소를 진행하고 일부는

지역에 체류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캠프 후 제복 공무원 자녀 등 참가자들이 남원시를 기억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홍보 및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청소년 안전캠프 유치를 통해 남원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찰 및 소방 공공기관 유치 연계를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문자들이 남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최경식 남원시장,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 동참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긍정 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으로 △자녀 알기 △관점 바꾸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함께 키우기 등 9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남원시 부모학교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긍정 양육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3일 순창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발대식

순창군은 지난 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불철 산불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열기남 부군수를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140명이 참석해 2025년 불철 산불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군은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산불감시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2명과 산불감시원 64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 예방 홍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제

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불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량산, 백방산, 장군봉, 깃대봉 등 군내 주요 정상 14개소에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아미산, 무이산, 무량산, 대산뿔산, 장군봉, 백방산 등 6개소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산불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열기남 순창부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시작되는 만큼, 쓰레기와 논·밭두렁의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순창군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산림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챌린저 주니어 테니스대회, 7일부터 7일간

초등테니스연맹 주최·주관…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서

12세 이하 주니어 테니스 선수 참가 가능… 3개 리그로 진행

스포츠마케팅의 메카 순창군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2025 순창 챌린저(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뜨거운 스포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 라귀현)이 주최·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유소년 테니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의 축제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12세 이하의 주니어 테니스 선수이며, 경기는 연령에 따라

새싹부·10세부·12세부 등 3개 리그로 나누어 남녀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은 이번 대회가 겨울철에 치러지는 만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온열 기구를 경기장 곳곳에 배치하고, 참가자들에게 어묵탕, 핫팩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순창군이 스포츠대회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유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선수단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응원단의 방문

이 추가로 이어져 단기 체류 인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치러지는 대회로, 체류인원은 일일 최대 600여 명, 총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매출 향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스포츠산업은 오뚜기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순창군을 스포츠 도시이자 경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연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810여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지난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 농진청장 표창 수상 영예

임실군이 주요 농작자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 연장한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대 농기계 22종 810여 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얻었다.

임대 농기계는 임실군 농업인 및 임실군에 농기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업기계와 축진 유공 지자체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는 전국 147개 농기계임대사업

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정부 정책사업 참여 등 20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군은 평가 항목 20개 중 15개의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수상으로 확보한 사업비(국비) 1억원 등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과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건축재정 및 고환율 등 국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임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공공도서관, 책 읽기 도전

100권 프로그램 11월까지 운영

남원시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출발 책 읽기 도전 100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스스로 선택한 그림책 80권과 사서가 추천한 그림책 20권을 모두 읽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취감 및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도서관 회원 중 2017년~2021년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독서 통장을 제공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통장에 적어 최종 100권까지 채우도록 하며, 독서 통장을 완성하면 선착순으로 총 80명에게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한다.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달 31일 폭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임실군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임실군은 평균 적설량은 28.2mm를 기록했으며, 최고 42.5cm의 적설량을 기록하여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주요 피해시설은 우사 및 퇴비사, 연동하우스이며 지붕이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군의회는 이번 폭설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물 피해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14일까지 신규 모집

남원시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대상은 남원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으로, 올해부터는 법인 사업자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여전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 남원시청 일지리경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상태 등을 현지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3월 중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순창군, 7일부터 1달간 2025 전국 사업체 조사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 현황을 분석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조사다.

순창군 조사 대상은 관내 모든 사업체 약 3,172개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6명의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여건에 따라 전화조사 등의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내용검토 과정에서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지역별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한다. 최종 결과는 올해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들이 국민행동요령으로 △야외 활동 자제 △외부작업 및 공사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 착용 등을 안내하면서 준수를 당부했고, 특히 빙판길 운전시 스노우체인 장착 및 저속운행 등 빙판길 운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